

주요과목 줄이고 선택과목 확대... 2028 대입은 '안갯속'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초등학교에 선택과목 도입
고등학교는 필수 이수학점 줄이고
자기주도학습 강화 방향에 방점

초6·중3·고3 '진로연계학기' 도입
구체적 대입개편안 2024년 발표 목표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뿌리인 총론 주요 사항이 공개됐다.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습 부담은 줄이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게 뼈대다. 경제 등 일부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지는 등 초중등 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은 큰 틀 초차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부터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고등학교에선 필수이수학점은 줄이는 대신 자율이수학점은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시대 변화에 따른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생태전환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과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직전인 초6, 중3, 고3들의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해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새로 도입한다. 진로연계학기엔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화용해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한다. 초 1, 2학년 '즐거움 생활'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한 생활 시수 중 16시간을 활용해 총 144시간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나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 2회 이상 실외놀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학교는 1학년때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는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로 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현행 '자

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에서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과목 체계가 기존 '공통과목+일반·진로선택과목'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사회 일반선택과목이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경제,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현행 일반선택과목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바뀐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이들 과목은 수능에서 빠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초중고 교육과정이 바뀌지만,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틀은 아직 안갯속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을 묻는 질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평가도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이미 정책연구에 들어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능 방식을 반영해

서 한 번의 수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2024년 2월에 대입제도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능 체제의 변화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아직 가능하기 힘들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학년 한 학기는 자유학기, 3학년 2학기는 전환교육 시기가 된다면 학교 교과교육이 위축되고 학부모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차라리 입시가 끝난 후 진로교육을 보다 심화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상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초학력 격차 줄이기 정책공유 장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오늘 '사례 공유마당'
우수사례 발표, 공유·토론 등 진행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 교육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25일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2021 기초학력 보장 사업 사례 공유마당'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초학력 업무담당 교원, 교육지역청별 기초학력 지원단, 참여희망 교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학력향상사업 우수사례 발표 ▲모듬별 사례 공유 및 토론 ▲שמ이 있는 공간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 공유될 기초학력보장 사업 우수 사례로는 ▲단위학교 책임지도제(서울거원초, 학생 맞춤형 다중지원팀 운영을 통한 지원) ▲초1, 2 협력강사(서울신성초, 참여중심 수업을 통한 협력수업 운영) ▲맞춤형교육 선도학교(서울은빛초, 초3,4학년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키다리샘(서울전농초, 개별적 피드백 및 심리·정서 활동을 통한 밀착 지원) ▲서울두드림 학교(서울미성초,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계적 통합지원) ▲초등 기초학력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서울신양초, 초1, 2학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의적·인지적 프로그램 개발·적용) 운영 사례 등이 소개된다.

교육청이 지난 15~19일 관내 초등학교 563곳에 자녀를 둔 학부모 2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가 단위학교 책임지도에 만족하는 등 서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학교에서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중 자녀가 키다리샘의 지도를 받은 학부모 모두(100%)가 키다리샘의 지도가 자녀의 기초학력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키다리샘 정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hj@

한양대-삼성SDI, 배터리 미래인재 양성

배터리 인재양성과정 협약 체결

한양대학교가 삼성SDI와 손잡고 배터리 분야 미래 인재양성에 나선다. 24일 한양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한양대-삼성SDI 배터리 인재양성과정(HSBT)'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주 한양대 공과대학장, 김한수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삼성SDI 장혁 연구소장(부사장), 심의경 인사팀장(부사장), 송호준 기획팀장(전무), 장문석 극관개발팀장(상무)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삼성SDI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혁 삼성SDI 연구소장(왼쪽)과 이주 한양대 공과대학장이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배터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양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내년 신설되는 배터리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삼성SDI 입사를 희망하는 학부생이며, 연간 최대 20명을 선발한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 주관기관 선정

고교부 심사 맡아 진행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022년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 공동 주관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국대는 고교부 심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독후감 공모전 공동 주관기관은 공모전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1개교가 늘었다.



동국대 전경

/동국대

동국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고신대 문헌정보관, 서강대 로울라도서관 등 총 3개교가 선정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인공지능시대에 ▲인문소양 ▲공학소양 ▲인간존엄성 ▲소통력 등 함양을 위한 독서·독후활동 활성화와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고교와 대학 연계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4회째를 맞이하는 독후감 공모전은 전국 재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부와 주관기관 대학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독후감은 고교 및 추천도서 100선 중 한 권을 선택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경희대, 수시논술 경쟁률 '71대1' 최고

성대 55대1, 동국대 52대1 뒤이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논술고사 일정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논술고사 전형으로 300명 이상 선발하는 서울지역 대학 중 경희대가 501명 모집에 3만5452명이 지원해 70.7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에 이어 성균관대가 357명 모집에 2만770명이 지원해 55.27대1, 동국대가 350명 모집에 1만8050명이 지원해 51.57대1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 49.03:1 ▲연세

대 48.47:1 ▲건국대 45.43:1 ▲한국의대 34.21:1 ▲세종대 33.34:1 ▲이화여대 32.14:1 을 기록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작년보다 3개가 늘어 36개이다. 전체 선발 인원은 1만1069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3.2%이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주요 대학이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고 수시모집 인원을 줄였다. 또한 불수능으로 인해 논술 결시율도 평소보다 높지 않아 더욱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진 기자